

[보도자료] 쿠팡 ‘패션 블랙프라이데이’, 70여 개 브랜드 최대 87% 할인

2020. 12. 2.



- 쿠팡
패션위크,
블랙프라이데이
맞아 7일까지 진행
- 70여
개 패션 브랜드 참여, 총
6천여 개 역대 최대 규모 패션
기획전

2020.

12. 2. 서울 – 쿠팡이 시즌오프 상품 등을 최대 87%

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‘패션

블랙프라이데이’ 기획전을 연다. 이번 행사는 쿠팡이 매달 첫

주 테마를 선정해 패션 트렌드 및 할인 상품을 제안하는 ‘패션위크’의

일환으로,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7일까지

진행한다.

‘패션

블랙프라이데이’는 70여

개 패션 브랜드의 총 6천여 개 상품을 선보이는 역대

최대 규모 패션 기획전이다. ▲아우터 ▲공용/캐주얼 의류 ▲여성

의류 ▲남성 의류 ▲신발 ▲가방/잡화 ▲유아동 의류 ▲유아동 신발 ▲신생아 의류 등 총 9개의 카테고리 구성했다. 특히 스트

리트 패션 브랜드와 신생아 의류

브랜드가 참여한 첫 기획전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한층 높였다.

브랜드별 할인 판매를 통해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 및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. 2일까지는 난닝구, 인스턴트핑크 등 스트리트 브랜

드와 나이키,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를 할인가에 선보인다. 이후 7일까지는 마리앤모리, 윌튼키즈, 라라야망, 베베나인 등 아동

및 신생아용 브랜드를 할인가에 선보인다. 이번 기획전의 대표 상품 ▲샬리 빅 포켓 버튼 울 코트는 87% 할인된 2만2700원에, ▲폴햄 여성용 오로라 데일리 푸퍼 패딩 점퍼는 41% 할인된 7만4900원에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4050

인기 브랜드도 로켓배송으로 구매 가능하다.

조이너스, 벨리시앙,

엠씨 등 기존 인기 브랜드들을 비롯해 올리비아로렌,

폼빠니아, 인디안,

마에스트로 등의 브랜드들이 신규 입점해 더 다양한 패션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.

이준석

쿠팡 리테일 디렉터는 “성큼 다가온 겨울을 대비해 전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맞이 의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

기획전을 준비했다”며 “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

겨울 패션 상품들을 로켓배송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